

마키노 신이치와 이상 문학에 있어서의 신경증적 양상 연구*

김명주**
mjkim@gnu.ac.kr

<目次>

- | | |
|-----------|------------|
| 1. 서론 | 4. 신경증과 분열 |
| 2. 밤낮의 전환 | 5. 죽음 |
| 3. 골방 생활 | 6. 맺음말 |

主題語: 마키노 신이치(Makino Shinichi), 이상(Yi Sang), 신경증(Neurosis), 죽음(death), 골방(closet), 밤낮의 전환(switch of day and night)

1. 서론

마키노 신이치(牧野信一, 1896-1936)와 이상(李箱, 1910-1937) 문학 간의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일본 내 연구는 전무하다. 그런 중 최근 국내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4편 정도의 논문이 나왔다. 김명주의 육친혐오를 시작으로, 환상성이나 사소설적 글쓰기에 대한 연구¹⁾와 함께 김효순의 ‘불안’에 관한 연구²⁾가 그것으로, 그 중 김명주는 환상성에 관한 논의에서 두 문학 간에는 환상성이 유사하게 발견되고, 그것은 신경증적 양상과 맞물려 있으며 특히 마키노의 경우 만년으로 갈수록 그 양상이 심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³⁾. 특히 두 문학의 유사성 중에서도 ‘신경증’은 가장 현저한 양상이므로 각각의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2-A00159)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교수

1) 김명주(2011.3)「마키노 신이치와 이상문학의 ‘환상성’ 비교」『일본어교육』55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_____(2012.6)「마키노 신이치와 이상 문학 ‘육친혐오’ 비교」『일본어교육』60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_____(2013.9)「마키노 신이치와 이상 문학에 있어서의 ‘사소설’적 글쓰기의 특징 비교」『일본어교육』65
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 김효순(2012.5)「이상문학의 불안과 마키노 신이치(牧野信一) 문학의 방법」『일본근대학연구』36집, 한국
일본근대학회

문학적 특질을 밝히는 데에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작품을 대상으로 신경증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김효순의 연구와도 연관이 있다. 김효순⁴⁾은 이상과 마키노의 불안을 시대상황이나 문단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지만, 시대상황으로만 정리되지 않는 개별적 특징에 주목하여 텍스트 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제로 이들 작가들은 신경증을 앓고 있었고, 대다수 작품들이 사소설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그대로 표출되어있을 개연성이 높다⁵⁾. 다만 문학 연구에 있어서의 작가와 작품 간 인과관계는 신중히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특히 불안이나 신경증적 양상이 되면 그 범위나 개념이 모호하여 분석상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따른다. 이에 우선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신경증적 양상은 정신의학적 관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좁게는 편집증이나 강박증, 그리고 ‘광기’ 등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비일상적인 행동 양상을 포함하며, 넓게는 비애감이나 불안, 우울감 등과 같은 정서적 현상들까지 포함한다. 즉 정신분열증이나 신경증 같은 것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적이지 않는 정서, 사고, 행동 양상을 모두 포함하여 추출 비교하였다.

분석 대상은 전 시기에 걸친 두 작가의 주요 소설 작품들로 삼았다. 이상의 작품은 시 100여 편, 기타 50여 편이 되지만 소설은 16편으로 극히 적은 편이다. 그 중 허구적 성격이 강한 처녀작 「十二月 十二日」이나 동화나 우화적인 「황소와 도깨비」, 「지주회시」, 희문 「지평이 轢死」 등을 제외한, 「地圖의 暗室」(1932), 「날개」(1936), 「逢別記」(1936), 「失花」(1936), 「終生記」(1936), 「慄怖의 記錄」(1937), 「童骸」(1937), 「斷髮」(유고), 「幻視記」(유고), 「不幸한 繼承」(유고), 10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상 문학은 시작(詩作)으로 출발하여 뒤에 소설로 전환하지만 활동기간이 극히 짧기 때문에 대부분 1936년 이후, 즉 죽기 직전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마키노의 경우는 전 194편으로 방대하므로 전중후기의 대표작 「손톱(爪)」(1919), 「아비를 파는 자식(父を売る子)」(1924), 「악의 동의어(惡の同意語)」(1925), 「F마을에서의 봄(F村での春)」(1926), 「엘리베이터와 달빛(吊籠と月光と)」(1930), 「박제(剥製)」(1934) 6편을 삼았다. 분석에 있어서 서사구조의 세부적 분석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주로 표현의 유사성을 토대로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다시 말하면 먼저 작품 속에 보이는 표현의 유사성을 대조하여 그 패턴을 정리하여 상호텍스트성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3) “이와 같이 두 작가의 ‘환상성’에는 양상은 다소 다르지만, ‘신경증’적 요소가 내재하고 있으므로, 그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양자의 상호텍스트성은 다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김명주, 2011:201)

4) 이상의 불안과 공포는 마키노가 군국주의화와 근대화 일변도를 달리고 있던 소비도시 도쿄(=20세기)에서 느꼈던 그것과 동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김효순, 2012:193)

5) 김명주(2013.9) 「마키노 신이치와 이상 문학에 있어서의 ‘사소설’적 글쓰기의 특징 비교」 『일본어교육』 65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분석 결과 두 문학에서는 일상과 차단된 주인공의 폐쇄적인 생활 양상이 유사한 양상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세부적으로 밤낮이 거꾸로 된 생활이나 밤거리의 배회, 골방에의 칩거나 신경증이나 인격분열 양상, 그리고 죽음의 이미지 등이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밤낮의 전환

두 문학에서는 밤낮이 뒤바뀐 생활, 즉 ‘밤낮의 전환’ 양상이 대부분의 작품에서 확인된다. 먼저 마키노의 경우 처녀작 「손톱」에는 방에만 틀어박혀 잠만 자는 인물이 제시된다.

그는 2, 3일 전부터 병을 구실로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딱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니지만, 계속 잠만 잤던 탓인지 머릿속이 꼭 빈 종이박스처럼 헛헛했고, 게다가 목직한 취기가 엉겨 붙어 있는 듯, 일어날 결심이 서질 않았던 것이다. 하긴 그에게 이런 일은 종종 있는 일로, 잠깐 신선한 공기만 쐬다면 가뿐히 낫는 것이었다. (손톱, p.3)⁶⁾

이 양상은 중기 작품 「F마을에서의 봄」에 이르면 강도가 더해지고 있다.

밤, 잠들지 못한다고 해도 다루노의 경우는 그만큼 낮 동안 숙면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쇠약이라 할 정도는 아니었다. 아침 늦잠과 야행성 습관이 차츰 심해져 그저 낮밤이 뒤바뀌었다. 쉽게 잠들지 못하고 아침 눈뜰 때부터 개운치 않은 기분 탓에, 어릴 때부터 다루노는 주위 사람들에게 지독히도 폐를 끼쳐 왔다. (F마을에서의 봄, p.137)

그것은 후기 작품 「박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마키노의 작품은 전 시기에 걸쳐 밤낮의 전환이 표출되고 있으며, 갈수록 우울하고 어두운 이미지를 더해가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은 이상의 경우이다.

(A) 기인동안잠자고 짧은동안누웠던 것이 짧은동안 잠자고 기인동안누웠던그이다 네시에누우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아홉시에서열시까지리상-나는리상한 우스운사람을아안다 (地圖의 暗室, p.164)

6) 마키노 작품의 번역은 모두 필자에 의한 것으로, 지면 관계상 원문은 병기하지 않았다.

- (B) 대낮이다. 이부자리를 펴고 그 속으로 움푹 들어가서 너무죽이 누워서, 이래도? 하고 그昏到라는 것이 오기를 기다렸다. (恐怖의 記錄, p.195)
- (C)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낮잠을 잔다. 한 번도 걷은 일이 없는 내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 (날개, p.323)
- (D) 나는 밤이나 낮이나 누워 잠만 자니까 錦紅이에게 對하여 심심하다. (逢別記, p.351)

이상 문학 역시 ‘밤낮의 전환’이 뚜렷하게 표출된다. 그리고 낮에는 어두운 골방에 틀어박혀 잠을 자고 밤이 되면 거리를 방랑하는 패턴이다. 한편 이상 문학의 경우는 강도를 따로 논하기가 어렵고 전체적으로 균질적인 양상을 보인다.

거듭 말하지만 이들의 글쓰기는 작가 자신의 내면 풍경을 그대로 표출한 사소설적 글쓰기로 정의된다. 마키노가 낮에 수면을 취하는 자신의 일상을 ‘밤낮의 전환’으로 부르던 것처럼 사적인 생활상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다. 이상도 역시 “낮에는 자고 밤에는 박태원, 정인택, 윤태영 등과 수염투성이의 얼굴, 작소머리에 아래위로 흰 양복을 걸치고 백단화에 스틱을 휘두르면서 밤거리를 뚫었다.”⁸⁾라고 하므로 개인 생활이 그대로 표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상의 이러한 ‘밤낮의 전환’에 대해 조두영⁹⁾은 “저자는 낮으로 상징되는 의식 세계와 어둠으로 상징되는 무의식세계라는 것을 들어, 상이 가진 무의식의 정서가 이렇게 창작 과정이란 정신 활동을 거쳐 작품 속 중요 사건의 때와 장소로써 표현되었다”라고 의식/무의식의 대립을 읽고 있다. 그러나 이상 문학에 표출된 ‘밤’의 양상은 대개 인물에게 있어서 의식이 깨어나 꿈틀거리는 생명의 시간대를 의미하며, 낮의 햇빛을 피하여 골방에서 고립된 생활이지만, 밤에는 낮 동안의 혼미하고 몽롱한 의식이 깨어나 살아 약동한다. 낮 시간대는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인으로서의 세계로써, 그 양지의 세계에 적응하지 못한 인물의 삶은 수면을 통하여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형태이다. 즉 낮 동안의 잠이란 융화되지 못하는 일상세계에의 거부를 의미하지만, 그러한 생활의 절망성을 덮어버리는 어둠의 장막이 내린 밤이라는 시간대는 고독하지만 생동감이 있으므로, 양지의 현실세계에서 소외된 인물들의 안식처로서의 시간대라 할 수 있다.

7) 두 작가의 문학은 일본 자연주의의 전통적인 ‘사소설(私小說)’의 형태는 아니지만, ‘사소설’적 양상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 평가되고 있다.(김명주, 2013:140)

8) 김승희(1996)『이상』문학세계사, p.69
 그 외 작품의 용례로 “밤이면 나는 幽靈과 같이 興奮하여 거리를 뚫었다. 나는 目標을 갖지 않았다.”(恐怖의 記錄201), “이슬비에 젖은 아스팔트를 이리 디디고 저리 디디고 저녁 안 먹은 내 발길은 자못 踰躓하였다.”(失花:380-381), “나는 밤 깊은 거리를 무릎이 척척 접히도록 쏘다녀 보았다.”(幻視記:367) 등을 들 수 있다.

9) 조두영(1986.11)「이상의 인간사와 정신분석」『문학사상』(김윤식 편(1995)『李箱문학전집4 부록』문학사상사, p.281)

이러한 관점은 위에서 살펴본 마키노 문학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고에서는 이들 문학의 ‘밤낮의 전환’ 양상을 ‘생활/예술적 자아’의 대립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들이 겪는 낮의 수면 상태란 일종의 생활적 자아의 소거 상태로 볼 수 있으며, 밤은 상식적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기 힘든 예술적 자아의 표상으로 볼 수 있다. 혼자 깨어 있거나, 사색하거나 글을 쓰거나 아니면, 모두가 잠든 밤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은, 일상적 현실에 대한 거부이자, 생활적 자아의 죽음이자 예술적 자아의 각성이며 예술적 자아의 비상에 대한 의지 로써, 두 문학 간의 상호텍스트성을 지적할 수 있다.

3. 골방 생활

‘밤낮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골방 생활’을 중층적으로 패턴화 시킨다. 즉 두 문학에는 타인과의 교섭이 없으며 공유되지 않는 은밀한 자신만의 세계로써의 골방이 설정되고 칩거하는 생활이 기본 플롯을 형성하므로, 그 토포스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마키노의 경우이다.

- (A) 그는 2, 3일 전부터 병을 구실로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딱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니지만, 계속 잠만 잤던 탓인지 머릿속이 꼭 빈 종이박스처럼 헛헛했고, 게다가 목직한 취기가 영겨 붙어 있는 듯, 일어날 결심이 서질 않았던 것이다. (손톱, p.3)
- (B) 그저 권태로운 날들을 움츠려 지낸들 울적할 뿐이라는 생각에, 그는 4, 5일 전부터 뭔가 가공적 인 소설이라도 써보자 결심한 것이지만,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자니 그저 우울하고 한심할 뿐이어서 결국 이불 속으로 기어들고 말았다. (‘악’의 동의어, p.75)
- (C) 어둑한 다락방이었다. 창가에는 버드나무인지 측백나무인지가 가지를 드리우고 있어서, 보릿 자루를 잇대 만든 커튼을 치면 낮조차 램프가 필요했다.(중략)나는 줄을 당겨 덧문을 닫고는 굴거미처럼 암굴 속에서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다. 북쪽 창에는 눈 바로 위에서 자물쇠를 채운 낡은 빈지문이 가로로 밖을 향해 열려 있었지만, 나는 커튼을 친 채 램프를 계속 켜다. (박제, p.210)

마키노의 경우, 인물들이 대부분 어둔 골방에 칩거하며 공상하거나 창작에 몰두한다. (A)에서는 사춘여동생, (B)에서는 부인 정도가 출입하지만, (C)에서는 차츰 누구와도 교섭이 없는 자폐적 양상을 띠며, 그 양상은 후기로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다음은 이상의 경우이다.

- (A) 혼자서 나쁜 짓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어두컴컴한 房 안에 標本과 같이 端坐하여 蒼白한 얼굴로 나는 後悔를 기다리고 있다. (恐怖의 記錄, p.203)
- (B) 나는 내 좀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하였고 논문도 많이 썼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철철 넘치는 그 흐늑흐늑한 공기에 다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 데 간 데가 없고 한잠 자고 깨인 나는 속이 무명 형겅이나 메밀껍질로 뽕뽕 찬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 벌 神經이었을 뿐이고 뿐이고 하였다. (날개, pp.323-324)
- (C) 나는 날마다 殞命하였다. 나는 자던 잠이 잠이야말로 언제 시작한 잠이더냐. 을 깨이면 내 痛切한 生涯가 開始되는데 靑春이 여지없이 蕩盡되는 것은 이불을 푹 뒤집어쓰고 누웠지만 歷歷히 目睹한다. (終生記, pp.378-379)

이상 문학 역시 대부분의 작품에서 외부와 교섭이 없는 고립적 형태를 보인다. 방 안에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누가 출입한다든지 하는 장면은 거의 볼 수가 없다. 즉 이들 작품 속의 공간은 전체적으로 외부와 격절되어 내밀하고 어두운 이미지로 표출되지만, 경향적으로는 마키노 문학이 갈수록 차츰 어둠이 짙어지는 반면 이상의 경우는 그 추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마키노에 비해 작가활동 시기가 적고 특히 소설 창작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변용상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골방이라는 밀폐된 공간은 인물들의 어두운 자의식을 표출하는 토포스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미지적으로 예술적 자아가 중첩되는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예를 들면 골방의 이미지와 함께 ‘박제’나 ‘꺾인 날개’와 같이 새의 모티프가 제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석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먼저 마키노의 경우이다.

그런 어둑어둑한 새장과 같은 다락방에서, 까마귀 날갯 소리에 괴성을 지르거나, 꿈쩍 않고 서 있는 새들 속에서 별뿔별뿔 일어나는 내 모습이 딱따구리라고도, 수리부엉이라고도 할 수 없이 어이없게 옆의 표본류들과 헛갈린다—고 쇼와 유타는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았다. (박제, p.210)

그대로 죽지도 못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아직 기나다 물레방아에서 박제된 새들 속에 앉아 있을 뿐이다. (박제, p.239)

새의 모티프가 다양하게 표출되는 것 역시 마키노 문학의 특징이지만¹⁰⁾, 더욱이 위의 ‘박제’와 같이 ‘표본’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어서 이상 문학과 관련하여 함의하는 바가 크다

10) “소설 중에는 동물과 미생물이나 식물이 자주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동물은 말이나 여우, 늑대, 산돼지, 개, 두더지, 쥐, 개구리. 조류는 수리부엉이, 올빼미, 학, 두루미, 앵무새 등이 등장한다.”; 近田茂芳(2004) 『牧野信一の文学』上卷, 夢工房, p.386

하겠다. 즉 이상 문학에서 라이트 모티프로 논의되는 ‘박제’나 ‘표본’의 표상과도 상호텍스트 성 연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 (A) 혼자서 나쁜 짓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어두컴컴한 房 안에 標本과 같이 혼자 端坐하여 蒼白한 얼굴로 나는 後悔를 기다리고 있다. (恐怖의 記錄, p.203)
- (B) 그레 標本처럼 혼자 椅子에 端坐하여 蒼白한 얼굴이 後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不幸한 繼承, p.209)
- (C) ‘剝製가 되어 버린 天才’를 아시오? (날개, p.318)

이미 (C)의 ‘박제된 천재’가 바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1892-1927)라는 것이 정설이 되어 있다¹¹⁾. 그러나 최근 ‘과연 이상의 『날개』 속 ‘박제된 천재를 아시오!’의 ‘천재’가 과연 ‘아쿠타가와가 맞는가?’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¹²⁾라는 문제제기가 나와 있다. 김명주는 1927년 마키노가 아쿠타가와와의 자살 소식에 충격을 받아 도쿄에서 고향 오다와라(小田原)로 귀향했듯이, 1936년 이상이 마키노의 자살 소식에 충격을 받고, 경성에서 도쿄로 도일하고 있어서 이들 작가 간 죽음과 공간을 축으로 연결성이 논해질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요구되며, 본고에서는 ‘박제’ 표상에 한정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상과 아쿠타가와와의 비교 연구에서 이미 ‘박제’ 표상에 대하여 ‘인공의 날개’라는 키워드에 주목하여 ‘예술적 자아’의 비상의 좌절이 지적되어 있다³⁾. ‘박제’가 창작상의 좌절을 표출하고 있다고 본 것으로, 이 해석은 어두운 골방에서 박제를 만들고 표본처럼 생활하는 마키노의 경우에도 유의미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방 안에서 공상하거나 연구하거나 구상하는 모든 행위들이 일상적 생활과는 도무지 관련이 없는 것이다.

또한 그와 함께 선행연구⁴⁾에서 마키노 문학에서의 ‘골방’에 대해 또 다른 메타포로서의 ‘감옥’이나 ‘지옥’과 연결시켜 해석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거울지옥(鏡地獄)’이라는 소설과 같이 감옥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하는 말이 작품 속에 다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¹⁵⁾, 골방의

11) 조사옥(2002.10)「李箱문학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日本文化研究』7, 동아시아일본학회; 김명주(2004.5) 「아쿠타가와 『툽니바퀴』와 이상 『날개』 연구」『일어일문학연구』49집, 한국일어일문학회

12) 김명주 역(2015)『마키노 신이치 단편집』지식을 만드는데 지식, p.242

13) 김명주(2004)「아쿠타가와 『툽니바퀴(齒車)』와 이상 『날개』 비교고찰」『일어일문학연구』49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431

14) 近田茂芳(2004)『牧野信一の文学』下卷, 夢工房, pp.109-110

15) “감옥 등의 표현은 소설 19편, 지옥 등은 소설 14편, 포로로 잡혀있다 등의 표현은 소설 17편, 그 외 처형이나 죄인 등의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다.”, 近田茂芳(2004)『牧野信一の文学』下卷, 夢工房, p.109

모티프와 함께 예술적 자아의 탈출불가능성을 함의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상 문학 역시 「囚人이 만든 小庭園」 등의 시작품에서 보이는 ‘罪를 내어버리고 싶다. 罪를내어던지고 싶다와 같은 죄의식의 토로나 또는 「날개」 등에서 표출된 유패 의식과 호응하므로, 이 골방의 이미지를 예술적 자아의 절망성을 토로하는 표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신경증과 분열

두 문학에 있어서 신경증에 대한 토로는 전 시기에 걸쳐 확인된다. 다음은 마키노의 경우이다.

(A) “신경쇠약이란 병인가!”

그 같은 생각도 해 봤지만, 술을 마시면 상당히 기운이 회복되는 걸 보니 이것도 뻔한 수작 같아서 그는 씩씩하게 웃고 말았다. (‘악’의 동의어, p.75)

(B) 그 자신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 눈에는 그가 상당히 심한 신경쇠약에 걸려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을 모두가 내심 걱정하고 있었지만, 증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F마을에서의 봄, p.168)

(C) “내 경우는 전혀 신경증 같은 건 아니니까, 뜬 같은 건 사양하겠어.”

나는 ‘유타의 쓸데없는 친절로 오후키가 눈치라도 챌다면 큰일이다!’하고 걱정되어 일부러 자세히 증상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박제, p.222)

마키노의 소설 65편, 수필 7편 속에 ‘신경증, 선병질, 신경과민, 결백증, 심계항진증, 우울증, 히스테리, 신경쇠약증, 공포성신경쇠약증, 폐쇄공포증과 같은 단어가 범람하고 직접 발광에 관해 쓰고 있는 것은 소설 45편 정도라고 한다¹⁶⁾. 즉 신경증은 마키노 문학의 라이트 모티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런데 전술했듯이 김효순은 그 원인에 대해 “1930년대 초반 사소설, 심경소설을 주축으로 하는 일본의 기성문학이 군국주의화, 근대도시, 소비도시화로의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오는 불안, 우울, 공포, 신경증 등을 주요 테마로 삼았다고 한다면 마키노의 문학은 바로 그러한 1930년대 문학적 특징을 구현했다고 할 수 있다.”¹⁷⁾고 한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마키노 문학을 ‘내면화된 시대의 그림자’로만 차치하고 말 일은 아니라고 본다.

16) 近田茂芳(2004)『牧野信一の文学』下巻, 夢工房, p.85

17) 김효순(2012)「이상문학의 불안과 마키노 신이치(牧野信一) 문학의 방법」『일본근대학연구』36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190

와세다 출신으로 와세다를 거점으로 하는 자연주의 진영에서 출발한 그의 문학이 끝내 자연주의의 사소설에는 공감하지 못한 채 모더니즘계열로 편입되어갔고 글쓰기가 모더니즘의 특성을 띠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마키노의 신경증적 양상은 시대나 유과적 특성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보다, 개인적으로 성장과정부터 안게 된 현실과의 불협화음이나 깊은 정신적 피로감에서 비롯된 개별적 특징이나 양상으로 보는 것이 더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 부인 세쓰는 「넛두리」¹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때때로 우울감에 빠져들어 그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우울이었습니다. 지옥의 밑바닥과도 통할 것 같은, 어둡다 어두운 얼굴을 하고, 종일 아니 며칠이고 지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눈물에 약하고 소심하고 솔직하고 슬픈 심정이 되었습니다. 눈동자는 힘없이 깜빡거렸지만, 아름답도록 맑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과 같이 만년으로 갈수록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정신적 피로는 더욱 가중돼갔던 것 같고, 1934년에는 점점 불안정한 상태가 심해져간 것이다. (중략) 「병상」 「박제」 등의 소설에서는 현실에 대처할 수 없는, 약한 마음을 가지고 피로감에 빠져들어 가는 추이가 암울한 톤의 문장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박제」는 뜻밖에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심정이 분출하는 부분을 보이기도 하여, 초기 작품과 같은 톤의 경지가 머리를 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¹⁹⁾

‘현실에 대처할 수 없는’ 무력한 생활적 자아가 느끼는 비애감과 피로감이 예술적 자아마저 송두리째 포섭하고 붕괴시키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²⁰⁾.

한편 이상 문학에서도 ‘정신분열자’ 즉 정신분열증을 직접 토로하고 있는데, 마키노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우회적으로 토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면, 반면 이상은 다음과 같이 직접적인 형태로 토로하는 양상을 보인다.

- (A) 性格破散, 무엇 때문에? 나의 敎養은 나의 生涯와 다름없이 되었다. 현 누더기 수염도 길렀다. 거리. 땅. (恐怖의 記錄, p.200)
- (B) 실로 나는 울창한 森林 속을 진중일 헤매고 끝끝내 한 나무의 印象을 흠쳐 오지 못한 幻覺의

18) 牧野せつ(1937.6)「つぶやき」『文芸首都』(<http://smakino.sakura.ne.jp/kaisoroku2.html> 재인용)

19) 金子昌夫(2002)『牧野信一と小田原』夢工房, pp.63-64

20) 복잡한 가정환경과 부부 간의 불화 등에 대한 것은 앞에 제시된 선행연구에서 잘 제시되어 있다.

스이다.

(童骸, p.271)

(C) 戀愛技法에마져 서먹서먹해진, 知性的의 極致를 흘깃 좀 들여다본 일이 있는 말하자면 一種의 精神奔逸者 말이오 (중략)그런 生活 속에 한 발만 들여놓고 恰似 두 개의 太陽처럼 마주 쳐다보면서 낄낄거리는 것이오 나는 아마 어지간히 人生的 諸行이 싱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끔 되고 그만둔 모양이오 끝빠이.

(날개, pp.318-319)

(D) 즉 나는 屍體다. 屍體는 生存하여 계신 萬物의 靈場을 향하여 嫉妬할 資格도 能力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깨닫는다.

(終生記, p.397)

특히 「사신(7)」²¹⁾에서 “小生 東京와서 神經衰弱이 極度에 이르렀소!”라고 토로하고 있음으로써, 일련의 연구에서 정신분석학적 방법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은 “유석진의 이상 연구가 시초가 되겠으나 시간의 흐름 때문에 사장된 감이 있던 중, 이상의 일대기와 많은 작품을 분석하여 분리 불안(separation anxiety), 동기간의 경쟁(sibling rivalry), 양가성(兩價性:ambivalence), 경조 상태(輕躁狀態)와 정신증적 우울의 연속적 반복, 상동성(常同性:stereotype)의 특징을 말하면서 그를 순환성 성격(cyclothymic personality)의 소유자라고 언급한 김중은의 「이상의 이상(理想)과 이상(異常)」은 오늘날 이상연구가만이 아니라 여러 문학 평론가들이 즐겨 인용하는 것이다²²⁾.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신과 교수 조두영의 “그의 시작은 상당수가 ‘지하 4층’에서 나왔으며, 소설은 ‘지하 5층’에서 나왔다. 그리고 죽기 전 동경에서 쓴 수상(隨想)은 ‘지하 3층’, 「어느 슬픈 이야기」는 ‘지하 2층’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²³⁾라는 지적은 두 문학이 우울증이나 신경증을 매개로 강하게 공명하고 있는 가운데, 두 문학간의 상호텍스트성을 밝히는데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의 소설 작품들이 무의식의 저층 즉 깊은 심연에서 나온 것으로, 이 시기를 특히 수동성, 의존성, 우울의 시기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 것이다. 즉 마키노의 소설이 이상의 수필 문학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 견해에 따르면 지하 2, 3층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흥미롭다.

그런데 신경증과 관련하여 두 문학에서는 일종의 ‘자아 분열’ 양상이 유사하게 표출되고 있으므로 미학적 본질을 파악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언제부턴가, 나는 자신을 세 개의 개성으로 나누어 그 인물들을 가공의 세계에서 활동하게 하는

21) 김윤식 편(1993)『李箱문학전집3 수필』문학사상사, p.236

22) 조두영(1986.11)「이상의 인간사와 정신분석」『문학사상』(김윤식 편(1995)『李箱문학전집4 부록』문학사상사, p.260 재인용)

23) 권영민 편저, 조두영(1998)「정신의학에서 바라본 이상」『이상문학 연구 60년』문학사상사, p.130

방법을 터득하고는 얼마간 휴식을 취했다. 아니 휴식을 취했다기보다, 망상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그 부칠 데 없는 정열 때문에 이 몸은 고무풍선처럼 파열했을 게 틀림없다.

(엘리베이터와 달빛, p.171)

이 작품은 마키노의 대표작으로, 작가의 인격적 분열체험을 문학적 상징으로 포착한 좋은 일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서사적 국면에서의 자아 분열 표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상 문학의 경우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내 『終生記』가 天下 눈 있는 선비들의 肝膽을 서늘하게 해 놓기를 애투이 바라는 一念 아래 이만큼 吝嗇한 내 맵시의 節約法을 披瀝하여 보인다.(중략)그러나 와글와글 들끓는 여러 ‘나’와 나는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각기 베스트를 다하여 제 자신만을 변호하는 때문에 나는 좀처럼 범인을 찾아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終生記, pp.375-376)

‘와글와글 들끓는 여러 나’(이상)와 자신의 인격을 셋으로 나누어 ‘늘 티격대는 사이로 지내는 나’(마키노)는 표면적으로도 유사성이 인정된다. 그 외 인격분열을 서사화하고 있는 작품들을 열거해보면 거의 유사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마키노의 경우이다.

(A) 그의 머릿속에는 별 희망도 없고, 둔한 신경만이 나날이 비굴하게 늘어져 갈 뿐, 이상할 정도로 비참한 그림자가 스스로도 어렴풋이 느껴졌다.(중략) 텅빈 마음으로 두 가지 상반되는 감정의 동요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악’의 동의어, p.70)

(B) 그는 요즘 자신의 둔감한 신경은 늘 낮은 수준에서 상반되게 동요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둔해도 좋으니 ‘한 가지’로 끝나고 싶었던 것이다.

(‘악’의 동의어, p.131)

(C)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자신만을 집요하게 조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다.

(F마을에서의 봄, p.168)

(D) 나는 철학과 예술의 분기점에서 충돌해 자유를 잃어버린 머릿속이 처치곤란이었다.

(엘리베이터와 달빛, p.171)

(E) 나는 도대체 어른인 걸까, 어린애인 걸까, 아니면 이미 사람이 아니게 된 걸까라는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친 듯한 슬픔으로”

(박제, p.239)

다음은 이상의 경우이다.

(A) 한달-맹렬한 절뚝발이의 세월-그동안에 나는 나의 성격의 서막을 닫아 버렸다.

(懔怖의 記錄, p.330)

그동안에 나는 나의 性格을 서랍 같은 그릇에다 담아 버렸다. 性格은 간데온데가 없어졌다.
(恐怖의 記錄, p.203)

(B) 실로 나는 울창한 森林 속을 진중일 헤매고 끝끝내 한 나무의 印象을 흠쳐 오지 못한 幻覺의 人이다.
(童骸, p.271)

마키노는 ‘신경’을 즐겨 사용하지만, 반면 이상은 인격을 ‘성격’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보는 나’와 ‘보이는 나’의 분열이 인격의 분립으로 표출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서술적 국면에서도 작가, 서술자, 인물이 장면에 따라 분립하는 양상이 빈출한다. 예를 들면 글쓰기를 관장하는 서술적 자아(작가)마저 작품에 투사하여 자아를 중층적으로 표출시키는 방법이다. 다음은 마키노의 경우이다.

(A) 그는 자신의 부친이 나오는 단편소설을 내리 두 편 썼다. (아비를 파는 자식, p.19)

그래서 그는 제목을 붙이지 않은 이 소설에 ‘아비를 파는 자식’을 가지고 와서 붙이기로 했다.
이제 곧 아버지의 49재가 다가온다. (아비를 파는 자식, p.44)

(B) 이런 생각으로 우쭐해진 나는 흡스텝으로 산을 뛰어 내려가 A의 소위 머메이드 앞에 다가 갔다.

“어머, 마키노 씨잖아요?”

라고 그 술집 여자가 소리치며 달려 나와 내 앞을 가로막았다.(엘리베이터와 달빛, p.178)

그것은 이상의 경우도 마키노와 마찬가지로 작품 속에 자신의 작품명(A)이나 이름(B)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

(A) 나는 내 『終生記』가 天下 눈 있는 선비들의 肝膽을 서늘하게 해 놓기를 애뜻이 바라는一念 아래 이만큼 吝嗇한 내 맵시의 節約法을 披露하여 보인다. (終生記, p.375)

(B) 兪政과 李籍이 神聖不可侵의 찬란한 情事이 너무나 엄청난 거짓을 어떻게 다 주체를 할 작정인지. (失花, p.367)

이와 같이 두 작가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자아를 작품 속에 내면화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자아의 분립 양상은 서술적 국면에 있어서도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키노 문학은 파편화된 서사 구성이나 서술에 있어서의 내적 고백체나 의식의 흐름과 같은 방법을 취함으로써 많은 오해를 초래하게 된다. 일찍이 가쓰야마 고24)는 “그의

내부에는 여러 관념, 사상이 잡거하고 있어서 통일된 세계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글쓰기의 미숙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는 형태로 곧다 시게요시는 나를 그리는 또 다른 나를 지적하면서 “마키노의 경우는 나를 일인칭 인물과 그 등 3인칭으로 등장하는 인물인 나가 서로 상대를 관찰하며 서술하는 것이나, 서로 자신인 두 인물을 그리는 것으로, 한 사람인 나의 이념과 행동까지 빛과 그림자와 같이 복합적으로 또 다면적으로 그리려는 발상이어서, 다케다 씨가 말하는 ‘나의 분립이라는 방법’의 진정으로 응집된 발상²⁵⁾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비교적 정확한 견해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마키노 문학의 자아 분열 양상은 일종의 ‘자아의 분립’의 문학적 표출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적 경험으로써의 신경증적 양상을 글쓰기의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시킨 결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글쓰기의 국면에서 신경증이나 분열을 그것을 경험하는 나와 바라보는 나, 그리고 글쓰는 나와 같이 인물존재의 이분법, 삼분법적 분립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경우 역시 이러한 분열에 대해 김상환²⁶⁾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상의 문학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주제는 분열의 체험과 결부되어 있다. (중략) 자아의 분열, 내면과 외면의 대립, 세속적 현실과 이상적 현실 사이의 거리, 봉건적 가족관계에 얽매인 김해경과 심미적 탐닉을 추구하는 이상 사이의 갈등은 줄기차게 이상 문학을 이해하는 공리적 사태로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분열과 갈등 혹은 불일치의 체험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차원을 넘어 모더니즘 문명의 본성에 대한 통찰과 이어져 있다. 이상은 분명히 모더니즘 문명의 본성이 파편화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최초의 한국인에 속한다. 라고 평가했다.

이상 문학 연구자들 역시 ‘자아분열’에 대해 시대상황이나 문단 상황에 귀결시키려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경훈의 ‘다시 말해 이상의 독특한 트릭이나 기교 또는 일탈은, 분열적인 자기관계의 포즈와 더불어, 결국 인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신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점(천하의 ‘炯眼’)을 끊임없이 작품 속에 내면화함으로써 결과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방식으로 이상의 작품은 이미 필연적으로 관찰을 유도하는 구조이다. 즉 이상 문학은 그 폐쇄된 내면의 자기관계 속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은 채 오히려 그것을 강조하거나 더욱더 왜곡함으로써, 그 일그러지고 폐쇄된 반성적 내면을 관찰대상으로 놓은 또 다른 외부의 시점을 힘있게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²⁷⁾라는 해석은 전술한 마키노에 대한 관점과 공명하고 있어

24) 勝山功(1960)『牧野信一研究』『紀要』9, 群馬大学, p.16

25) 近田茂芳(2004)『牧野信一の文学』下卷, 夢工房, p.230

26) 권영민 편저, 김상환(1998)「이상 문학의 존재론적 이해」『이상문학 연구 60년』문학사상사, p.134

27) 권영민 편저, 이경훈(1998)「공정성의 부재 암시하는 역설적 글쓰기」『이상문학 연구 60년』문학사상사,

서 본고에 있어서 시사받는 바가 크다. 즉 자신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점을 작품 속에 내면화했다는 지적이 마키노의 경우와 유사하게 지적되고 있어서 유의미하게 상호텍스트성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들 문학은 서사 세계에 있어서 생활적 자아와 예술적 자아의 분열을 주로 토로하는 형태이지만, 서술에 있어서 서사세계 속의 자신을 바라보는 나와 서술하는 나를 각자 분립시키는 등, 각자 다른 층위를 중층적으로 구성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대립 갈등하는 생활적 자아와 예술적 자아와 그것을 보는 자신과 그것을 쓰는 자신들로 통합되지 않고 위화하는 자의식의 내부의 고뇌를 주제로 표출하는 문학적 방법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죽음

두 작가의 죽음의 방식은 다르다. 마키노는 39세에 자살했고, 이상은 26세에 폐결핵으로 죽었다. 문학에 있어서도 이상의 죽음이 병사를 가장한 자살로 해석될 만큼 생전 자살에 대한 강한 동경이 표출되고 있지만²⁸⁾, 반면 마키노의 경우는 자살에 대한 토로 뿐 아니라 죽음에 관한 표현 역시 적은 것이 특징이다.

생과 사의 경계가 몽롱한 날을 보낸다.

그대로 죽지도 못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는, 여기서 소설답게 각필할 것까지도 없이, 한마디 부기가 필요할 것이다. 나는 아직 기나다물레방아에서 박제된 새들 속에 앉아 있을 뿐이다. (박제, p.239)

「박제」가 만년의 작품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위의 문장에서와 같이 창작상 직접적인 토로를 피하고 억제된 어조를 방법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급작스런 마키노의 죽음은 주변을 당혹케 했다. 생활면에서 무력하고 파탄적이던 그의 삶의 표적들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느끼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느닷없이 일어난 그의 죽음을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것 또한 쉽지는 않았던 것이다. 당시 매체에서는 마키노의 자살의 주요인을 대체적으로 ‘건강 문제’와 ‘생활고’로 인한 ‘신경쇠약’이나 ‘염세’로 파악하고 있었다.

p.351

28) “동경행은 자살과 거의 동의어였다.”, 김윤식(1987)『李箱研究』문학사상사, p.148

나는 K군의 질문에 대답하며, 그 자살의 원인이 생활고도 아니지만 가정사도 아니고, 병고도 아니라고 역설했다.

“그럼, 예술상의 정체.....라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그 만큼 재능을 가진 남자가 그런 게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요즘 소설을 쓸 수 없다고 자주 말했다고 하는데?.....”

“쓸 수 없다고 해서, 곧 정체가 왔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정체가 없어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이 원인인 것 같아요?”

“살아 있는 게 싫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²⁹⁾

한편으로 이와 같이 예술상의 정체에서 원인을 찾는 등 지인들은 부실했다. 그리고 너무나 사소설적인 그의 작품들 때문에 그것들이 다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물론 그의 죽음에 대해 타의 자살자 작가들이 그렇듯이 그의 작품은 그의 죽음을 역으로 증거 짓는 근거가 되고 말았다는 한탄도 나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의 의도였다는 쪽이 맞을 것이다. 고비아시 히데오는 마키노에 대해 깊은 애정을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마키노 신이치의 작품에 강하게 마음이 끌린 것은 그가 “엘리베이트와 월광” “심상풍경” “제론” 등과 같은 작품을 잇따라 쓰던 무렵이었다. 리얼리즘 소설 전성기던 당시 문단에 있어서 그는 덧없는 이야기가, 묘한 아름다움으로 보일 거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그의 작품에 끌렸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 독특한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는 가늠할 수가 없었다. 그가 자살 후, 그의 실생활에 대해 짐작할 수 있게 된 지금, 나는 겨우 그의 덧없는 이야기가 결작인 이유를 생각해내기에 이르렀다. 그는 도피한 것은 아니다. 꿈을 꾸는 것도 아니다. 이것들은 만신창이로 살아간, 그의 생활의 수첩이었던 것이다.³⁰⁾

마키노의 작품들을 ‘만신창이로 살아간 그의 생활의 수첩’으로 정의한 것이다. 즉 마키노가 자신의 문학에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울감이나 신경증의 토로나 혹은 묘한 환상성의 방법 등을 통하여 극히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또 하물며 마키노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고, 사적으로 교류하고 있던 사키구치 안고³¹⁾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29) 久保田万太郎(1936.3.26.)「牧野の自殺(上)」『東京日日新聞』
(<http://www.connec.co.jp/makinos/special/newsfile.htm> 재인용)
30) 小林秀雄(1962.5)「牧野信一」『『牧野信一全集』内容見本』
(<http://smakino.sakura.ne.jp/kaisoroku2.html> 재인용)
31) 坂口安吾(1936.5)「牧野さんの死」『作品』第七卷 第五号
(http://www.aozora.gr.jp/cards/001095/files/42982_21269.html 재인용)

“그 뭐라 해도 자살의 진정한 근간을 이루는 것은 그의 생애의 문장이 가장 명백하게 말하는 대로 그의 일생의 문학이 자살을 약속한, 자살과 일심동체의 문학이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중략) ‘꿈이 인생을 죽였던’ 것이다. 그것이 실상인 것이다. (중략) 자살은 마키노 상의 마쓰리였을 지도 모른다.”

문학과 삶이 하나의 텍스트로 융합되어 있다는 말일 것이며, 마키노의 자살을 ‘마쓰리’ 즉 ‘제전’으로까지 비유하고 있어서 모두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카구치의 지적을 본고의 용어로 환연해보면 마키노의 죽음은 예술적 자아 속에 생활적 자아가 완전히 잠식당하고만 결과 일어난 경우으로써 문학텍스트 속의 예술적 자아가 초월적으로 재생하는 의식적 행위와 같다는 의미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마키노가 자신의 삶의 데이터를 문학텍스트로 ‘덧어쓰기’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이 된다. 물론 대부분의 자살자의 문학이 대체적으로 그런 양상을 띠는 경향이 있다. 전술한 아쿠타가와가 그렇고, 그 뒤를 잇는 다자이 오사무(太宰治)가 그렇고, 미시마 유키오(三島由起夫)가 그렇다. 예술의 완성을 위하여 인생을 제물로 바친 작가들의 영역에 마키노 역시 자신의 의도대로 입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상의 경우 죽음을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장면은 전 시기에 걸쳐 발견된다.

- (A) 나는 十年 긴--- 歲月을 두고 세수할 때마다 自殺을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나는 決心하는 방법도 執行하는 方法도 아무 것도 모르는 체다. (失花, p.364)
二十七歲를 一期로 하는 不遇의 天才가 되기 위하여 죽는 것이다.(失花:367)
- (B) 죽음은 食前의 담배 한 모금보다도 쉽다. 그렇건만 죽음은 결코 그의 窓戶를 두드릴 리가 없으리라고 미리 넘겨짚고 있는 그였다. 그러나 다만 하나의 例外가 있는 것을 認定한다. A double Suicide (斷髮, p.246)
- (C)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자살마저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不幸한 繼承, p.208)
- (D) 무슨 방법으로든지 생활력을 회복하려 꿈꾸는 때도 없지는 않다. 그것 때문에 나는 입때 자살을 안 하고 대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나는 말하고 싶다만. (恐怖의 記錄, 317)
- (E) 나는 그날 아침에 무슨 생각에서 그랬던지 이를 닦으면서 내 작성 중에 있는 유서 때문에 꿈꿨다. 열세 벌의 유서가 거의 완성해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을 집어내보아도 다 같이 서너여섯 살에 자살한 어느 ‘천재’가 머리맡에 놓고 간 蓋世의 逸品の 亞流에서 一步를 나서지 못했다. (終生記, 380)

모두를 예로 든 것은 아니지만 이상 문학은 ‘죽음의 미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죽음의 이미지가 강렬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죽음에 대한 동경이 서사의 중핵을

이루고 그 외의 소재들은 일종의 수사적 디테일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이상은 마키노가 자살한 후 ‘마키노가 죽었다고 그리고 부럽소’라고 했다³²⁾. 그리고 도일한지 반년 만에 폐결핵으로 죽었는데, 다음은 도쿄에서 김기림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生에 對한 勇氣, 好奇心 이런 것이 날로 稀薄하여 가는 것을 自覺하오. 이것은 참 濟度할 수 없는 悲劇이오! 芥川이나 牧野 같은 사람들이 맛보았을 성싶은 最後 한 刹那의 心境은 나 亦 어느 瞬間 電光 같이 짧게 그러나 참 똑똑하게 맛보는 것이 이즈음 한두번이 아니오³³⁾

하선부와 같이 아쿠타가와나 마키노의 자살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이상은 예술가는 ‘예술적 유키스마리’에서 자살을 꿈꾼다고 하는데³⁴⁾, 그 몇 개월 후 일어난 자신의 죽음에 ‘예술적 유키스마리’로 죽었다고 믿은 아쿠타가와나 마키노의 자살을 배경그림으로 넣고만 결과가 된 것이다. 김주현(1999:205)은 “1935년 성천여행에서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같은 병을 앓고 있던 김유정과 동반자살을 꿈꾸기도 하고 자주 자살의 욕망에 빠져들기도 한다. 1936년 일본 동경으로 훌쩍 떠나게 된 것도 이러한 실존적 불안과 죽음의 공포가 많이 작용했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므로 본질적이고 치명적인 죽음을 인식한 가운데 그의 문학 행위가 자리해 있다.”³⁵⁾고 지적한다. 이상의 죽음은 마키노처럼 일종의 염세성과 우울감을 동반한 신경증의 결과로만 단정할 수 없지만, 스스로의 인생을 문학 텍스트로 변환시킨 일종의 ‘제의’나 문학적 퍼포먼스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박제’에서 ‘날개’로의 궤적을 祭儀적 죽음과 再生의 패턴을 닮은 轉身과정을 그린다. 따라서 李箱의 작품 안에서 강렬하게 되풀이 말해지는 ‘자살에의 충동’은 결국 자아의 변형과 제의적 재생을 위한 강한 욕구의 발로 이와는 다름 아니다. 즉 그는 보다 강한 삶에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살을 꿈꾸고 자살을 꿈꾸는 공간인 혼돈과 광기의 ‘어두운 골방’에서 결국 제의적 죽음의 과정을 모방하여 ‘자아의 새로운 힘’을 얻어내는 것이다.”³⁶⁾

32) “그러나 그는 그 곳에서 그 당시 자살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본 작가 牧野信一의 뒤를 따라 자살하지도 못하고(그는 윤 태영에의 편지에서 ‘마키노(牧野)가 죽었다고 그리고, 참 부럽소’라고 적었다)”, 김승희(1996)『이상』문학세계사, p.75

33) 김윤식 편(1993)『李箱문학전집3 수필』문학사상사, p.236

34) “또 상은 ‘참된 예술가는 결코 현재에 안일하지 않는다. 늘 새 경지를 향해 다름질치고 만일 그에게 유키쓰마리(타개의 길이 막힌 상태)가 왔을 때에는 고민이 오고 드디어는 자살까지를 초래한다.’ 이렇게도 말하면서(하략)”(문종혁(1974.4)「몇 가지 이의(異議)」문학사상(김유중·김주현 편(2004)『그리운 그 이름 이상』지식산업사, p.132)

35) 김주현(1999)『이상소설 연구』소명출판, p.205

36) 김승희(1996)『이상』문학세계사, p.78

‘자살에의 충동’이 결국 자아의 변형과 제의적 재생을 위한 강한 욕구의 발로라는 위의 지적에서는 마키노 문학을 중첩시킬 수가 있다. 두 문학은 자신들의 죽음이 텍스트 읽기에서 뚜렷한 후경(後景)이 되고 말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죽음을 통해 문학 세계가 완성되고 거기서 예술적 자아가 재생된다는 의미에서 강한 연결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키노가 죽음을 통해 텍스트를 완성했다고 한다면 이상은 텍스트를 통해 죽음을 완성시켜간 느낌이다. 즉 마키노는 텍스트에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이상은 텍스트에 함몰된 느낌이 강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6. 맺음말

두 문학에 있어서의 신경증적 양상은 대부분 유사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인 유사성 이면에 표출 방법이나 내용 등에 있어서 차이점도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텍스트 내부에 한해서 확인되는 상호텍스트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했으며, 작가의 실생활적 부분을 배제하려 했으나 사소설적 성격을 띤 작품 특성상 부분적으로 근거로 삼지 않을 수는 없었다. 또한 문단이나 시대 조류와 같은 외적 관련성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두 문학에는 밤낮이라는 시간과 골방과 외부세계라는 공간의 대립과 통합되지 않는 자아의 분열을 경험하며, 신경증에 의해 고통을 받거나 죽음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한 폐쇄적 생활의 이면에는 생활적 자아와 대립하는 형태로 예술적 자아의 비상 의지가 확인되며, 일상적 생활의 중력에서 벗어나 무한히 확장되는 예술의 세계로 비상하고자하는 의지가 좌절 되었을 때 신경증과 그 결과로써 죽음이 도래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죽음은 제의나 재생의 의미로 해석되는 공통성이 확인되었다.

두 문학에서는 이와 같은 신경증적 양상 외에도 또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이 발견되고 있다. 그것이 수용의 결과인지, 아니면 두 작가의 성장과정과 기질적 유사성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판단은 쉽지가 않다. 다만 같은 시대에 나온 두 문학에 드리워진 우울과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는 미학적 장치로 전환된 형태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생활의 대조는 가능한 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김명주(2004.5)「아쿠타가와 『툼니바퀴』와 이상 『날개』 연구」『일어일문학연구』49, 한국일어일문학회
 _____(2008.6)「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와 이상(李箱)문학 비교-도쿄(東京)를 중심으로-」『일어교육』44, 한국일본어교육학회
 _____(2011.3)「마키노 신이치와 이상문학의 ‘환상성’ 비교」『일본어교육』55, 한국일본어교육학회
 _____(2012.6)「마키노 신이치와 이상 문학 ‘육친혐오’ 비교」『일본어교육』60, 한국일본어교육학회
 _____(2013.9)「마키노 신이치와 이상 문학에 있어서의 ‘사소설’적 글쓰기의 특징 비교」『일본어교육』65, 한국일본어교육학회
 김명주 역(2015)『마키노 신이치 단편집』지식을 만드는 지식
 김승희(1996)『이상』문학세계사
 김윤식(1987)『李箱研究』문학사상사
 김윤식 편(1989)『李箱문학전집1 시』문학사상사
 _____(1991)『李箱문학전집2 소설』문학사상사
 _____(1993)『李箱문학전집3 수필』문학사상사
 _____(1995)『李箱문학전집4 논문모음』문학사상사
 권영민 편저, 감상환(1998)「이상 문학의 존재론적 이해」『이상문학 연구 60년』문학사상사, p.134
 권영민 편저, 조두영(1998)「정신의학에서 바라본 이상」『이상문학 연구 60년』문학사상사
 권영민 편저, 권영민(1998)「이상 연구의 회고와 전망 - 이상 문학, 근대적인 것으로부터의 탈출」『이상문학연구 60년』문학사상사
 권영민 편저, 이경훈(1998)「궁정성의 부재 암시하는 역설적 글쓰기」『이상문학 연구 60년』문학사상사
 김주현(1999)『李箱 소설 연구』소명출판
 김효순(2012.5)「이상문학의 불안과 마키노 신이치(牧野信一)문학의 방법」『일본근대학연구』36집, 한국일본근대학회
 문종혁(1974.4)「몇 가지 이의(異議)」『문학사상』(김유중·김주현 편(2004)『그리운 그 이름 이상』지식산업사)
 조두영(1986.11)「이상의 인간사와 정신분석」『문학사상』(김윤식 편(1995)『李箱문학전집4 부록』문학사상사, p.260 재인용)
 조사옥(2002.10)「李箱문학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日本文化研究』제7집, 동아시아일본학회
 讀賣新聞(1936.3.27)「牧野信一の自殺」『讀賣新聞』
 勝山功(1960)「牧野信一研究」『群馬大学紀要·人文科学編』九卷 三号
 金子昌夫(2002)『牧野信一と小田原』夢工房
 久保田万太郎(1936.3.26)「牧野の自殺(上)」『東京日日新聞』
 近田茂芳(2004)『牧野信一の文学』上卷, 夢工房
 _____(2004)『牧野信一の文学』下卷, 夢工房
 _____(2005)「牧野信一と宮沢賢治」『牧野信一と四人の作家』
 小林秀雄(1962.5)「牧野信一」『『牧野信一全集』内容見本』
 坂口安吾(1936.5)「牧野さんの死」『作品』第七卷第五号
 牧野信一(2002)『牧野信一全集』筑摩書房
 牧野せつ(1937.6)「つぶやき」『文芸首都』

논문투고일 : 2016년 09월 20일
 심사개시일 : 2016년 10월 18일
 1차 수정일 : 2016년 11월 12일
 2차 수정일 : 2016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6년 11월 15일

 <要旨>

마키노 신이치와 이상 문학에 있어서의 신경증적 양상 연구

김명주

최근 들어 한국에서는 두 문학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이 고찰되기 시작하였다. 본고는 그 일련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상 문학과 마키노 문학에 있어서의 ‘신경증적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밤낮의 전환’에서 밤낮의 대립상은 낮 즉 생활적 자아와 밤 즉 예술적 자아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낮의 수면은 생활적 자아의 소거로 볼 수 있으며, 깨어있는 밤의 시간대는 예술적 자아의 비상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둘째, 골방생활은 새나 박제의 이미지와 함께 제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예술적 자아의 비상에의 좌절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신경증적 양상은 자아 분열과 같은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그것은 생활적 자아와 예술적 자아의 분열을 겪는 자신과 그것을 보는 자아, 그리고 그것을 서술하는 자아가 각각 분립하는 형태로, 두 작가는 개인적 신경증의 체험을 글쓰기의 방법으로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죽음’은 일종의 ‘제의’나 재생의 욕구로 볼 수 있다. 즉 그들의 죽음은 문학텍스트로 인생을 ‘뒀어쓰기’한 경우로 파악되며, 마키노가 죽음을 통해 텍스트를 완성했다고 한다면 이상의 경우는 텍스트를 통해 죽음을 완성시켜간 느낌이다.

A Study on Neurotic Aspects in Literature of Makino Shinichi and Lee Sang

Kim, Myung-Ju

Recently, relations between the literature of Lee Sang and Makino Shinichi have been studied in Korea. This paper is a comparative analysis on neurotic aspects of Lee's and Makino's literature based on those previous studies.

First of all, a confrontation between day and night in a "switch of day and night" was understood as a confrontation between life ego and art ego. Sleep in daytime can be seen as the elimination of life ego, and being awake in nighttime expresses art ego's will to leap up.

Second, as closet life is usually shown with images of birds or stuffed animals, it was found that the closet life expresses frustration in the art ego's leap-up.

Third, it was confirmed that neurotic aspects are the same aspects as self disunion. This is a confrontation between the self who went through divisions between life ego and art ego and the other self who describe the division. It seems that the two writers found their personal neurotic experiences as writing methods.